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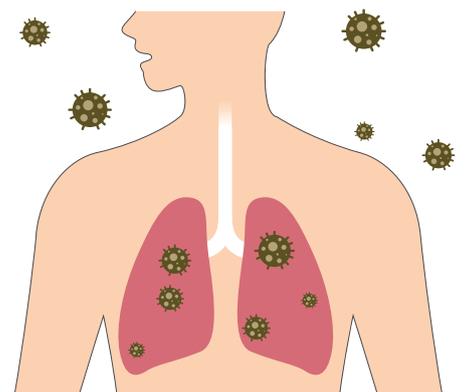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란?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CoV)라 하는데 이들은 사람과 긴 시간에 걸쳐 진화하면서 기침, 콧물 등의 가벼운 증상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2003년 박쥐에서 사향고향으로 전파되어 사람에게 넘어온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나 2015년 박쥐에서 낙타로 전파되어 사람에게 넘어온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와 같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 종족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동물 유래 코로나바이러스도 있으며 이들은 인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는 폐렴 등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사람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 발생에 대해 조사하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독감과 같이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의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됩니다. 기침을 한 번 하면 비말이 전방 2m 내로 분사된 후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며, 바이러스는 표면에서 일정 노출시간이 지나면 사멸하는데 사람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수성용매에서 6일, 건조한 무생물 표면(돌, 플라스틱)에서 3시간까지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말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끼는 것이 권고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발열¹⁾, 몸살기운 또는 기침, 가래, 콧물, 목아픔,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증세만으로는 일반 감기, 독감과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중한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감염이 심한 경우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나요?

바이러스에 노출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감염 예방법입니다. 일상에서의 단순한 예방 방법을 통해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아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 최소 20초간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물과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함량이 최소 60%인 손 세정제를 이용하세요.
-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역, 쇼핑몰과 같이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공간에서는 특히 마스크 착용²⁾을 잊지 마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알림 어플리케이션인 'KMA 코로나팩트(coronafact.org)자료실'에 올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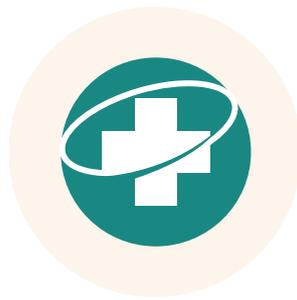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세요

- 아프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 계세요.
- 기침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덮으시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세요.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나 어깨를 이용하여 가려주세요.
- 자주 만지는 물건과 표면을 소독하세요.

중국에 다녀온 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했고 발열, 몸살기운 또는 기침, 가래, 콧물, 목아픔,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지역번호+120)로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알림 어플리케이션인 'KMA 코로나팩트(coronafac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있나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감염 예방의 최선입니다.

치료 방법이 존재하나요?

국내·외에서 기존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용한 여러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특화된 치료제나 확립된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하에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및 필요시 수액치료, 산소치료, 기계환기(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각주]

1. 영유아, 노인, 면역저하자, 해열제 복용자 등에서는 발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감염경로인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은 일반적인 마스크로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우리나라에서의 마스크 권고 지침은 사람간 전파가 보고되지 않은 나라(예. 미국)의 지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2019-ncov-factsheet.pdf>